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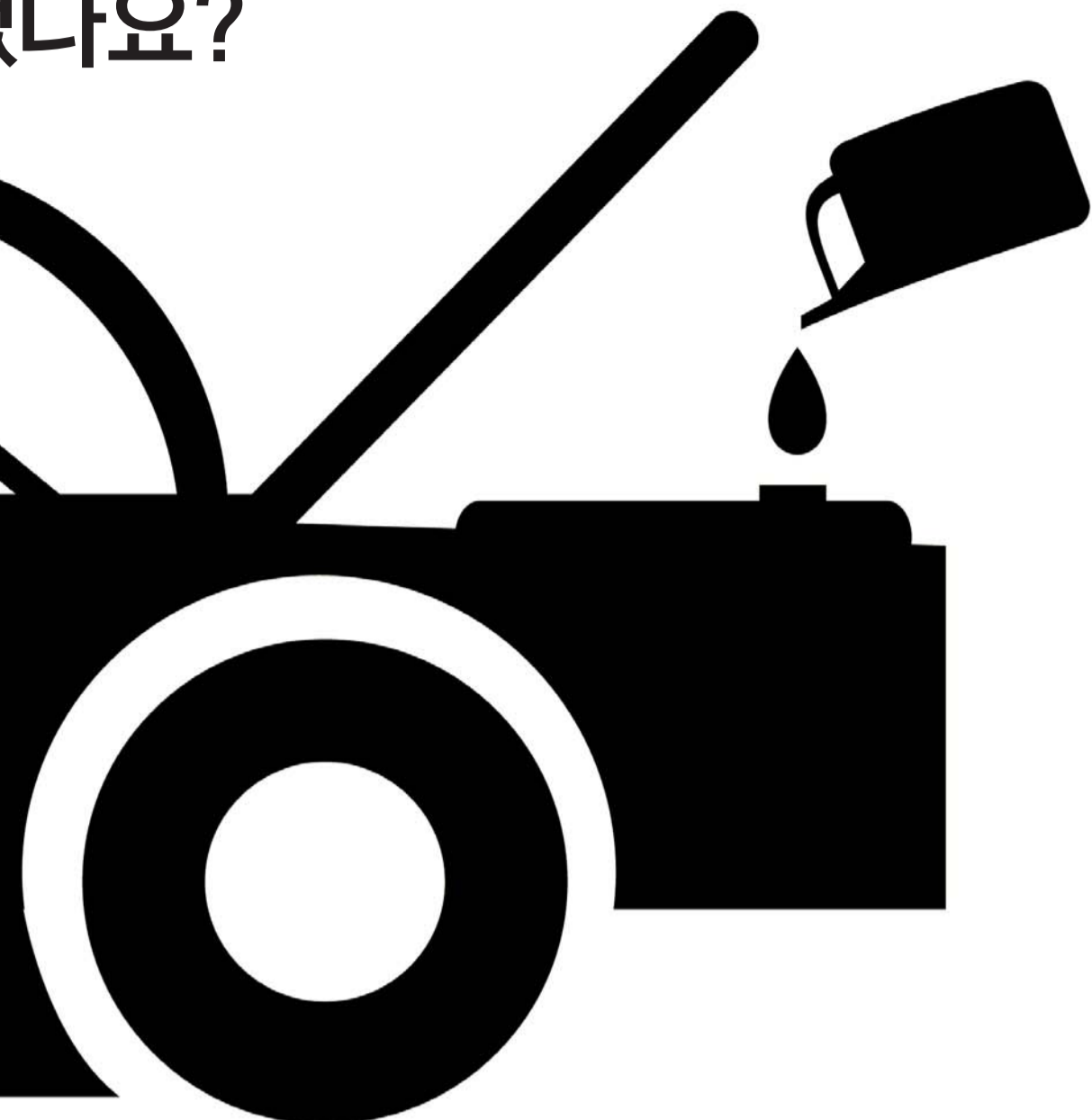
휴가 떠나는 당신, 자동차 점검 하셨나요?

고속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 평소보다 20% 올리고
뜨거운 노면에 타이어 변형 우려 2시간마다 휴식을
엔진룸 과열·부식 방지 '냉각수' 점검도 필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자동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의 도움을 받아 여름 차량 관리법을 들어봤다. 우선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타이어의 경우 수축과 팽창이 잦아 공기압이 쉽게 빠져나가기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다면 공기압 점검은 필수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수준보다 10~20%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뜨거운 노면을 고

속으로 달리면 타이어 접지면의 일부가 물결 모양으로 주름 잡히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Standing Wave)이 발생, 타이어 파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도 정상 타이어에 비해 뜨거운 도로를 주행 시 더 많은 열이 발생해 변형(스탠딩 웨이브)이 일어날 수 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쉽게 점검할 수 있다.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아래로 향하도록 타이어 트레드(노면에 닿는 부분) 틈에 꽂았을 때 감투가 반 이상 보이면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다는 의미다. 주행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해 타이어의 열을 내려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냉각수 점검도 필수다. 여름철 자동차 엔진

룸은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냉각수는 이를 낮춰 엔진 과열과 부식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각수 탱크의 'MAX'와 'MIN' 눈금 사이에 냉각수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6대 4로 섞어 보충하면 된다. 일반적인 냉각수 교체 시기는 2년마다 또는 4만km를 주행했을 때다. 차량 계기판에 있는 엔진 온도계 바늘이 중간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름철, 주차해둔 차량에 탑승할 때는 다른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서너 번 열었다 닫으면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대 하자 2회→수리 후 재발 땀 교환·환불

고장 난 신차 보상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 가격도 돌려줘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 받는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6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

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기아차 K5, 美 '밀리언셀러' 등극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7년간 매년 10만대 이상 팔려

기아차의 대표 중형세단 K5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K5는 지난 2010년 11월 미국 출시 후 약 8년만인 지난달까지 총 100만1802대 팔렸다. 하이브리드(HEV)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까지 합한 수치로, K5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만대 이상씩 판매되며 기아차의 미국 시장 공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2012~2015년에는 매년 15만대 넘게 팔려 기아차의 미국 전체 판매 차종 중 '베스트셀링 모델'에 4년 연속 등극하기도 했다. K5는 2010년 1세대, 2015년 2세대 모델이 각각 출시됐고 지난 1월 2세대 모델의 부분변경(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더 뉴 K5'가 국내에 먼저 나왔다. 기아차는 더 뉴 K5가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판매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더 뉴 K5 출시 후 지난달까지

K5의 누적 판매량은 2만7309대로, 작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기아차의 미국 모델별 판매순위는 올 1~7월 기준으로 K5 5만7795대, 쏘렌토 6만4742대, K3 6만1946대, 쏘울 5만8235대에 이어 4위를 기록중으로 향후 순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